



- 특집 _ 국민 58% “이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2년 전보다 12%P 늘어
-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 보낸다” - 동포사회 ‘나눔의 손길’
강경화 장관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



750만 재외동포를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750만 동포는 고난을 이겨낸 역사의 증인이자 우리 민족의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5,200만 국민과 77억 전 세계 인구가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이자 소통 창구입니다. 우리는 늘 재외동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가 가진 역량을 굳건하게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시련의 이주 역사 속에서도 교육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현지의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학교'를 만들어 자녀를 가르쳤고, 그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해 왔습니다. 재외동포는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기본법」 제29조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대회, 한국학교·한글학교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K-HED)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재외동포의 자녀가 민족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 16개국, 34개 한국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과 초·중등학교의 원격교육체계가 주목을 받은 것처럼, 34개의 재외 한국학교도 코로나19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보다 약간 달 앞서 원격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간 쌍방향 원칙의 원격수업을 통해 질 높은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바탕으로 등교수업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8개국에 소재한 41개 한국교육원은 그동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역사,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한글학교의 교육과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교육원은 현지의 수요에 맞춰 기능을 다변화하고, 현지 정부, 교육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국교육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교육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한국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원어민 교원 파견, 교육과정·교재 개발 등을 지원하고, 현지 교육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한국어가 해당 국가의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750만 동포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것을 확신합니다. 교육부도 차세대 재외동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02 권두언 750만 재외동포를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04 특집 국민 58% “이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 2년 전보다 12%p 늘어
- 06 화제 1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에 공정하게 보급되어야”
- 08 화제 2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 보낸다” - 동포사회 ‘나눔의 손길’
- 10 화제 3 강경화 장관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
- 11 동포문학 “가족사를 파헤쳐 역사와 맞닥뜨리다”...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
- 12 기획 정체기와 더불어 안정화 된 미국 시카고 한인사회
- 14 글로벌 코리안 베트남 코로나19 극복 위해 자문 역할 한 박기동 WHO 사무소장
프랑스에서 한류 전파 앞장선 남영호 감독
소독제 1억 원어치 기증한 재일동포 이명호 대표
- 16 한민족 공감 1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 긴급지원... 해리스 대사 “감사, 한·미동맹 굳건”
- 17 한민족 공감 2 뮌헨 한인 교교생 직접 재봉질해 만든 마스크 “동포에게 나눠달라”
- 18 동포소식 ‘유려한인 100년 발자취’ 출간... 22개국 이주사 담아 외
- 21 동포 캘린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어 온라인 수업자료실 오픈 외
- 22 지구촌 통신원 1 프랑스 상원 보고서 “한국은 코로나19 모범사례”
- 23 지구촌 통신원 2 베트남에 143개 한국 기업 340명 예외 입국... “빚장 푸는 단계”
- 24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자문위, 내외 동포 간 이해 증진 방안 논의 외
- 25 기고문 재외동포와 한국어 교육의 동행!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 EBS 국어 강사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58% “이민이 국가 발전에 기여”... 2년 전보다 12%p 늘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 ‘이민 생각했다’는 응답 대폭 줄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57.7%는 해외 이민이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여론조사업체인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9~27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해외 이민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항목에 3.6%는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54.1%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각각 1.2%와 7.0%에 그쳤다. 긍정적 응답률은 2017년 조사 때의 45.4%와 2013년 46.4%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부정적 응답률 합계 8.2%도 2017년(10.0%)과 2013년(13.9%)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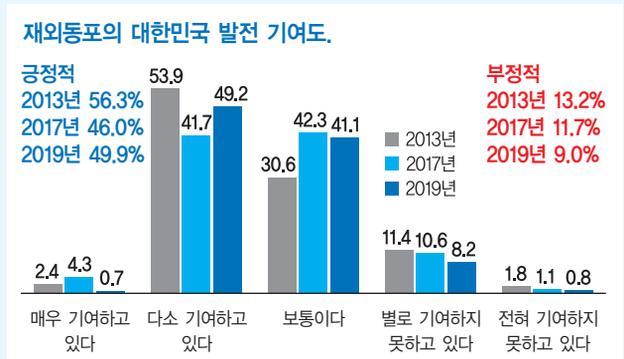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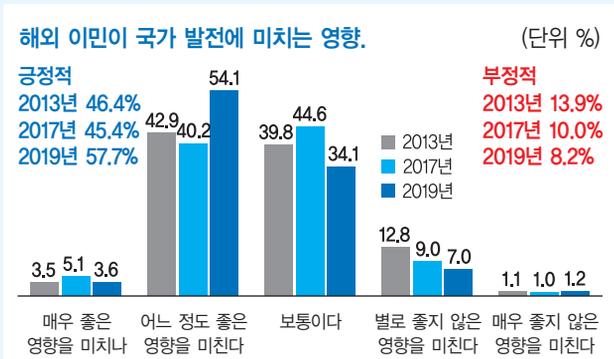
‘평소 이민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란 물음에는 16.2%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2017년 같은 질문에 38.0%가 ‘있다’고 대답한 것보다 21.8% 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이민을 고려한 이유로는 ‘가족의 교육 문제’(33.3%), ‘한국 내 삶에 대한 불만’(24.1%), ‘새로운 기회 발견’(15.4%), ‘해외 취업’(12.4%), ‘외국 동경’(12.4%), ‘국내 환경 오염 불만’(1.2%), ‘해외 투자’(0.6%), ‘정부 불만’(0.6%)을 들었다. 2017년 조사 때는 ‘한국 내 삶에 대한 불만’이 40.4%로 가장 높았고 ‘새로운 기회 발견’(19.2%)과 ‘가족의 교육 문제’(16.3%)가 뒤를 이었다. 가장 이민 가고 싶은 지역으로는 69.1%가 미국·캐나다를 꼽았다. 나머지는 유럽(12.3%), 오세아니아(9.9%), 아시아(4.3%), 일본, 중남미(이상 1.9%),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0.6%) 순이었다.

응답자 90.3%, “재외동포를 전반적으로 호감 있게 생각한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꼽은 응답자가 3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모 또는 조부모 혈통’(28.0%),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의식’(24.7%), ‘한국어 사용’(6.9%), ‘국내 거주’(2.2%) 순이었다. 2013년과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적과 혈통을 중시한 응답자가 늘어난 반면 자부심·의식을 꼽은 응답자는 줄었다. 우리 민족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는 75.9%에 이르지만, 부끄럽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0.5%에 그쳤다. 평소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응답은 32.5%로 예년보다 늘었다. 63.8%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가’란 물음에는 74.7%





1



2



3

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긍정적 응답률이 67.7%였다. '재외동포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67.0%, '재외동포와 정치·경제적 신념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응답은 65.8%로 집계됐다. '재외동포를 전반적으로 호감 있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9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소 재외동포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55.8%에 그쳤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장기체류 혹은 정착하는 것을 놓고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37.2%와 7.2%로 나타났다. 55.6%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했다.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64% 찬성

통일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중요한 역할로는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39.9%), '경제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26.7%), '남북관계 중재자'(22.0%), '북한 주민 의식 변화 촉진'(11.4%) 등을 꼽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63.7%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관한 찬반 의견은 71.3%와 28.7%,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는 52.3%와 3.8%를 각각 나타냈다.

내국인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재외동포와 만남 기회 확대'(41.9%), '재외동포 이해교육 활동 홍보'(28.0%),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20.4%), '정규 교육과정에 수록'(9.7%)을 꼽았다. 국제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서는, 미혼 응답자는 30.0%로 2년 전 34.3%보다 다소 낮아졌다. 가족 구성원의 국제결혼에도 반대(36.9%)가 찬성(30.2%)보다 많았고, 반대하는 비율도 2년 전 22.4%보다 높아졌다. '3년 계약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란 물음에는 39.5%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이었다.

"다문화 수용성은 후퇴하는 경향 보여"... 경기 침체, 취업난 영향

'한국인은 외국인·외국 문화에 대해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편'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61.4%)과 '외국인의 출신국에 따른 편견이 있는 편'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59.5%)도 예년 조사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편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4.9%에 달해 경기 침체와 취업난, 2018년 제주 입국 예멘인의 대거 난민 신청, 주요 선진국의 반이민 정책 등으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우성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재외동포 이해를 위한 교과서 개발 등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내국인과 재외동포가 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장]**

1.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 연수'에 참가한 각국 동포 학생들이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계례의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지난해 10월 4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 장면.
3.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재외동포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 “보건 취약국가 지원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회의인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보건규칙 정비 및 국가 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앞서 WHO는 지난 4월 백신의 개발과 분배를 위한 국제협체체를 출범시키는 등 공동대응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도 이런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화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모두의 자유’로 확장하는 담대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국외 대유행 여전히 위협적… 치료제 없으면 새 유행 올 수도”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총선에서는 2천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과 계속 교류하며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다”며 “국민 덕에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이 힘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국외의 세계적 대유행도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라며, 각자도생이 아닌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굳게 공유하면 위기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5월 10일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1



2



1.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를 쓴 기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있다.
2. 문 대통령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3. 문 대통령이 5월 18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화상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같은 임기 후반부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함과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 정부,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의 공포 등을 짚으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 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밝혔다.

“유엔 제재 저촉 안 되는 남북 방역협력 우선 추진”

문 대통령은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한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관련 질문에 “남북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모두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며, 남북의 감염병 방역협력·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방역협력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제안했고, 4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며 방역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 공동의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방역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남북, 나아가 북·미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 보낸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동포사회 ‘나눔의 손길’ 잇따라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돕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인 동포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전 세계 곳곳의 한인 동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전무후무한 곤경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동포와 현지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미주 한인사회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뉴욕주에 21만1천600달러(약 2억6천만 원) 상당의 의료용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뉴욕총영사관과 한인단체 등은 미주 한인사회가 KN95 마스크 3만5천장, 의료진용 N95 마스크 1천200장, 손 소독제 5천 개를 뉴욕주에 기부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마스크 등의 용품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 재단(학장 김민선), 한인기업 애플루트뉴욕(회장 김현중) 등이 기부금을 모아 마련했다. 한인사회는 이번 구호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현지 요양원과 필수업종 근로자들에게 우선 전달해달라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미국의 한인 2세들이 설립한 자선재단 ‘내일재단’(Naeil)은 뉴욕·뉴저지 일대의 병원 및 요양시설에 약 2만 벌의 의료용 방호복을 기부했다고 뉴욕한인회가 5월 12일 전했다. 일차적으로 뉴욕 퀸스의 엘머스트 병원에 의료용 방호복 2천 벌이 전달됐다. 이들 물품은 한국에서 제작된 수입용품들로, 모두 50만 달러(6억1천만 원) 어치다. 내일재단은 보호장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의료진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뉴욕한인회는 설명했다.

LA한인회, 코로나19 생계곤란 동포 400명에게 20만 달러 지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는 앞서 4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동포에게 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A 한인회는 재정난에 처한 한인 업체와 근로자, 일반 개인 가운데 400명을 우선 선정해 구호기금 2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은 대한제국 황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 기부한 10만 달러와 한인 의류기업 구스매뉴팩처링의 구우울 회장이 후원한 10만 달러로 조성됐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고, 많은 분이 직장을 잃었다”며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구호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 한인회는 현지 행정당국으로부터 필수사업장 허가를 받았으며, 동포사회에 미국 중소기업





청 재난 대출, 캘리포니아주 노동개발국 실업수당 신청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은 4월 20일 LA와 뉴욕, 시애틀 현지 병원에 의료용 마스크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한인 동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마스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인증한 N95 마스크 1만 장으로, 시가 30만 달러에 달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병원에 N95 마스크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LA 흑인거주 지역 병원, 한인타운 병원 등에 마스크를 차례로 기부한다. 최광철 대표는 UCLA 병원 마스크 전달식에서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인 한국인의 작은 정성을 미 의료진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UCLA 병원의 페드라 저라브치 지역협력 담당관은 “의료진에게 지금 즉시 필요한 마스크를 보내 주게 되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즈벡 한인들, 코로나 극복위해 현지 취약계층 지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우즈벡)의 한인사회 단체(한인회, 민주평통, 지상사협의회, 월드옥타)는 4월 28일 코로나19 통제 조치가 길어져 힘들어하고 있는 수도 타슈켄트의 저소득 취약계층 360개 가구를 위해 6천 달러 상당의 식료품(가구당 2주 분량)을 마련해 타슈켄트 시청에 전달했다.

타슈켄트 시청은 한인사회의 이번 기증이 외국인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첫 번째 사례라면서,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 왔다고 한국대사관은 전했다. 식료품 전달식은 우즈벡 조르(ZOR) TV방송에서 현장 생중계를 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4월 6일에는 지방 도시 사마르칸트에 체류하는 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1천400 달러를 모금해 주 정부 저소득층 지원센터에 기부했다.

또 4월 15일에는 현지 진출 한국 봉제업체 ‘동산’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체 생산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우즈벡 의료진에게 전달했고, 지난달 말에는 역시 현지에 진출한 한국 농산물 생산업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이 딸기 260kg을 현지 감염증 환자들을 위해 기증하기도 했다. 우즈벡에는 약 2천 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700여 개 한국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에콰도르 한인들, 어려운 현지인에게 식량·마스크 나누기 선행

중남미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현지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강우 한인회장은 5월 6일 키토 경찰청 앞 광장에서 한인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한 식량과 마스크를 마리아 파울라 로모 내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현지에서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한인들과 한솔 EME·건화엔지니어링 등 주재 기업, 현지 대사관 등 750여 명이 온정을 보냈으며, 총 1만9천 달러(약 2천328만 원)가 모여 식량 키트 1천200개와 마스크 500장을 마련했다.

이강우 한인회장은 “에콰도르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경제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동포들이 에콰도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와 공감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모 장관은 한인사회의 관대하고 따뜻한 후원에 대해 에콰도르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를 전한다며, 방역 활동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장]**

1. 우즈벡 한인 단체들의 식료품 기증식 모습(사진·우즈벡 주재 한국대사관 제공)
2. 이강우 에콰도르 키토 한인회장(왼쪽)이 5월 6일 마리아 파울라 로모 에콰도르 내무장관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에콰도르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과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
3. 미주 한인사회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뉴욕 주에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4. 미국 한인2세 자선재단 ‘내일재단’(Naeil)이 뉴욕 퀸스 엘머스트 병원에 의료용 방호복을 기부했다고 뉴욕한인회가 5월 12일 밝혔다.

강경화 장관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

독일 방송 출연... 이태원 집단감염 확산에 “추적 시스템 완전 가동”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강 장관은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인 환자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다”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하여 진단 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력을 사용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차별받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이체벨레 화면 캡처)

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클럽에 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클럽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러스는 국경을 단아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도이체벨레는 영어로 해외에 송출하는 독일의 공영방송이고, 강 장관이 출연한 ‘컨플릭트 존’은 도이체벨레의 대표적인 대담 프로그램이다.

한편 강 장관은 5월 13일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정부는) 방역과 인권간 균형 달성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접촉자 추적과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가족사를 파헤쳐 역사와 맞닥뜨리다”...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

일본 문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재일동포문학 위상 높여



2012년 방북기 '평양의 여름휴가' 출판기념회차 한국을 찾은 당시의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 씨.

○ 미리(柳美里·52)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π** 지내며 일본어로 글을 쓰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작가이다. 자신의 삶이 아직 정확하게 끝맺지 못한 한·일 역사와 달아있음을 깨닫는 데서 그의 문학은 시작된다. 희곡과 소설 장르에 걸쳐 언어적 실천 행위를 통해 양국의 경계에서 있는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유미리의 성장 과정에는 항상 어두운 과거, 불행한 가족사가 따라붙는다. 학교에서는 '조선징'이라는 멸시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경마광인 아버지와 카바레 호스티스였던 어머니의 가정불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평화가 없던 어린 시절은 가출, 퇴학, 실어증, 자살 시도, 자폐 초기증세 등 상처로

가득했다. 부모는 평소에 일본어로 생활하다가도 싸울 때면 한국어로 목소리를 높인 덕에, 유미리가 기억하는 한국어는 폭력적 이미지를 상기하는 음습한 언어였다. 두 언어의 가장자리에 서서 일본의 배제와 한국의 소외를 동시에 겪은 그는 자신의 한과 불안정한 삶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다.

1994년에 월간 문학지인 '신초(新潮)'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편이 넘는 소설과 에세이를 발표하고, 수많은 상을 거머쥐며 자신의 문학언어를 일구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불우한 과거를 마주할 수단으로 소설 창작을 택한 만큼, 재일동포 소재의 작품을 꾸준히 쓰며 자신이 누구인지 응시하는 긴 시간을 가졌다. 특히 '8월의 저편, 2004'는 일제강점기 때 손기정과 함께 마라토너로 활동했던 외할아버지의 운명을 조명하는 소설로, 과거와 미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2003년 동아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해 완주하기까지 했다. '내가 본 북조선, 평양의 여름휴가, 2012'는 세 번에 걸친 북한 방문기로, 평양, 백두산, 판문점 등을 둘러본 작가가 북한을 조국으로 대하며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문학으로 거둘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처럼 다양한 작품을 써낸 유미리는 소설 '풀하우스, 1996'으로 노마 문예 신인상과 이즈미 교카 문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진 고독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가족 시네마, 1997'을 통해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쿠타가와상을 받아 양국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골드 러쉬, 1998'로 기야마쇼헤이 문학상을, '생명, 2000'으로 잡지 저널리즘상 작품상을 받았다.

유미리는 재일동포로서 실존적 위치에 대한 고민과 언어 갈등을 작품화한 것 외에도,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가정 문제 속에 노출된 개인의 보편적 고통을 그려내 일본과 한국 사회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그의 작품은 일본 문단의 높은 평가를 받아 재일동포 작가들의 활약이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일동포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장**

정체기와 더불어 안정화 된 미국 시카고 한인사회

허세 과시나 물질 중심 풍조보다 문화적 활동이 많아

미국에서 3대 도시로 꼽히는 시카고. 미시간 호를 끼고 있는 시카고 대도시권에는 일리노이 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살고 있다. 2019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의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체류자)은 2만5,188명이고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는 7만8,944명이다. 미국 내 타 지역보다 시민권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주요 이유는 새로운 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영구 정착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LA)나 뉴욕 등에 비해 서류 미비자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이 많지 않다. 시카고 지역은 과거 공장이 많아 일자리를 찾아 이민자들이 많이 왔다. 과거의 제조업 전성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첨단 산업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시카고는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그 여파로 시카고 지역 전체 인구와 경제력은 줄어들고 있다. 한인사회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카고 한인 1세대이며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조광동(74) 전 미주한국일보 시카고 편집국장은 “한인 1세대는 노년기에 접어들고 새로운 이민자가 오지 않는 데다, 한인 은퇴자들은 기후가 좋은 캘리포니아 주, 애틀랜타 등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타계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다. 2세대도 직장 때문에 타 도시로 가는 경향이 많이 한인사회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시카고 한인사회는 고령화하면서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조광동 전 국장은 “타 지역 한인사회보다 시카고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허세를 부리거나 지나치게 과시하는 풍조가 적고, 한인사회 단체장 자리다툼



이나 한국 정치에 들뜬 사람이 비교적 적다. 물질 중심 풍조보다는 문화적 활동이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시카고 한인사회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데는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은 기후 환경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미국 이민법 제정 이후 시카고에도 한인들 몰려들어

시카고의 한인 이주 역사는 1903년 한인들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노동자는 정식 이민자가 아니라 노동 계약으로 온 일시 체류자였다. 이들 가운데 1천100명가량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3천여 명은 미국 본토로 이주해 샌프란시스코와 LA에 터를 잡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 전역으로 흩어졌고 50여 명이 시카고에 정착했다. 이들 사탕수수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시카고에 첫발을 디딘 한인이다.

1965년 미국 의회가 이민법을 제정하고, 1924년에 만들었던 동양인 차별법을 폐기했다. 이민법 발효로 한인 이민사에 새 장이 열렸다. 사탕수수 농장 이민과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전쟁고아와 미군 배우자 이주에 이은 세 번째 한인 이민 물결이지만, 정식으로 이민이 시작된 것은 이민법 이후였다. 이때부터 한인 이민이 급증해 미국 내 한인 숫자가 1960년 1만1천 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86만4천 명으로 늘었고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

코, 워싱턴D.C, 애틀랜타가 한인 밀집 도시로 변모했다.

1960년대 말 애드슨과 벨몬트 사이에 있는 클락 스트리트에 식당, 선물 가게, 여행사, 보험대리점, 책방, 가발 도매상, 신문사 등이 들어서면서 클락 스트리트는 시카고의 첫 '한인 거리'가 되었다. 1970년대 초, 한인들은 흑인 밀집 지역인 남쪽 상가에 진출했고 의류, 신발, 잡화, 미용 재료, 세탁소 등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자본과 경험 없이 의욕과 의지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흑인 지역 비즈니스는 시카고 한인 경제의 젖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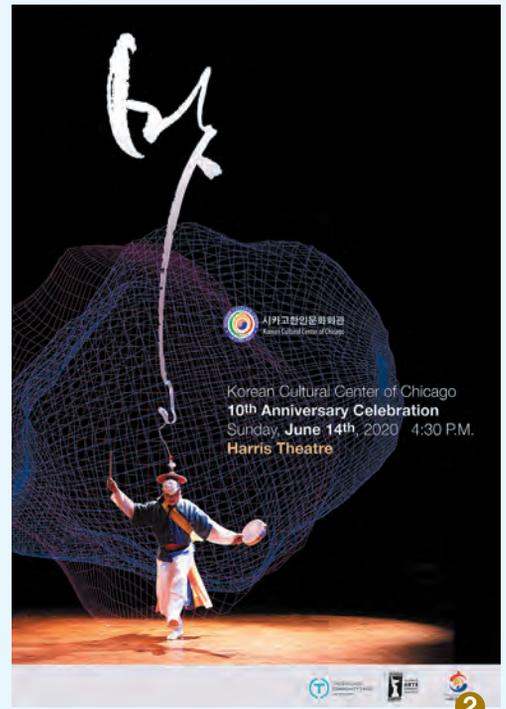
1980년대 이르러 이 지역 한인 가게는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카고 시의회는 1992년 로렌스 애비뉴를 '서울 드라이브'로 명명했다. 1980년대 급속이 늘어나 한인 자영업의 주종을 이룬 분야가 세탁업이다. 1990년 말 시카고 대도시 지역의 한인 세탁소는 1천500개소로 집계됐고 이는 이 지역 전체 세탁업의 80%를 차지했다. 세탁업과 함께 미용재료업이 한인들의 또 다른 주력 업종으로 부각했다. 1990년대 말 시카고 지역 한인 사업체는 3천 개에 달했고 한인의 약 30%가 자영업 종사자로 추정됐다.

1992년 4월 29일 LA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은 시카고에도 확산했다. 같은 해 8월 시카고 불스가 NBA 농구 경기에서 챔피언이 된 후 흥분한 시카고 남부 흑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남쪽 지역 한인 가게 30여 개가 불타고 약 1천만 달러의 피해를 당했다.

시카고 한인들이 교외로 떠나면서 상권도 교외 지역에 형성됐다. 나이스 글렌뷰 일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LA나 뉴욕, 애틀랜타처럼 밀집된 상가 지역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동포 기금으로 사들인 '한인문화회관', 시카고 한인들의 자랑

시카고 한인사회 얘기를 할 때 한인문화회관(회장 김윤태)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원과 달리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현지 동포들이 기금을 마련해 건물을 사들였다. 2010년 구입한 한인 문화회관은 총면적 3만2천 평방피트의 5개 건물동과 20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80여 개의 클래스가 운영되고 1년에 8만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시카고 한인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회관 측은 "10주년 개관 기념행사를 6월14일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아쉬워하면서 "기존 메인 빌딩 증축공사가 내년에 완공되면 10주년 기념을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



1.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전경.
2.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개관 10주년 행사를 위해 준비한 포스터.
3. 장인명은 1911년 경부터 시카고에 정착하여 이곳의 한인들을 위한 여관을 경영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교류했다. 장인명이 한인 여관을 개설하자 이곳에 한인들이 모이면서 1918년 시카고 지방회가 설치되고, 그의 여관이 지방회관이 됐다. 시카고 지방회관이 있었던 프래리가(Prairie Ave) 2514번지는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고, 그 자리에 멀시 병원 건물이 들어섰다.
4. 1893년 세계 47개국이 참가한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조선도 고종의 명으로 대원 10여명이 참가하여, 시카고 매뉴팩처러스 빌딩에 전통 기와집을 짓고 농산물, 비단, 연, 도자기, 자수병풍, 가족신발, 약기 등을 전시 및 판매하였다.
5. 1982년 시카고 시내 중심 디어본 스트리트에서 펼쳐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꽃차 퍼레이드. 동원된 꽃차가 6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다.





베트남 코로나19 극복 위해
자문 역할 한
박기동 WHO 사무소장

“사회적 거리 두기 점진적 완화 적절… 팬데믹 상황이라 게임 안 끝나”

베트남 정부는 4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다. 1주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베트남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는 데에는 방역 전문가인 박기동(57)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장의 역할도 컸다. 초기부터 베트남 정부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WHO 가이드라인으로 베트남 상황에 맞는 지침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조했다. 이후 매일 당국과 교류하며 필요한 정책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서울대 의대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의료관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 파견되기 직전에는 복지부 방역과장이었다. WHO 본부에서는 2009년까지 신종플루(H1N1) 위기 대응 업무를 맡아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WHO 직원으로 신분을 바꿔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9월 처음으로 국가 사무소장을 맡은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소장은 “보건의 기본은 방역”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은 베트남 정부가 하는 것이고, WHO는 당국에 자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가 4월 16일부터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베트남 정부는 2개월 전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해왔다”면서 “잘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베트남만 역량을 갖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집’ 세울래요”…

11월 중순 여섯 번째 ‘코레디시 페스티벌’ 개최

“1년 내내 한국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 ‘한국의 집’(메종 드 코레)을 세우고 싶어요.” 재봉동포 남영호(54) 코레그라피 예술감독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제2의 문화도시 몽펠리에에 ‘한국의 집’을 설립하겠다는 포부가 있다. 매년 11월 중순께 열리는 ‘코레디시(여기에 한국이 있다) 페스티벌’의 연장선이다. 2007년부터 ‘한국을 그리다’라는 뜻의 코레그라피 무용단을 이끌어 온 그는 2015년 코레디시 축제를 제안하고 기획한 주인공이다.

올해 여섯 번째 행사를 준비하는 남 감독은 4월 21일 “1년에 한 차례 축제를 열다 보니 몽펠리에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한국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상시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갈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몽펠리에에 부시장과 만나 뜻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남 감독은 코로나 19로 프랑스가 침체해 있지만, 올해에도 같은 기간에 코레디시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정체성과 뉴테크놀로지' 라는 주제로,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입양 한인을 초청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도 춤과 미술, K-팝과 힙합, 전시와 공연, 한식, 한지공예, 한국의 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만화, 음악, 비디오 영상의 컬래버 공연이 오페라 극장에서 열렸어요. 인기를 끌었죠. 저도 올해는 춤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코레디시를 시작하면서 개인 무용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는 한국어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월 19일 현지의 한 카페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행사를 처음 열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과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나 1시간 한국말로, 1시간 프랑스어로만 대화하는 것이다. 남 감독은 코레디시 축제와 한국어 보급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 유공자 상을 받았고, 2018년에는 제18회 한불문화상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위생 관련 비즈니스 주목받을 것”

"위생 관념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일본이지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공격에 취약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단계 높은 살균 기능성 제품 등 위생 관련 비즈니스가 앞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상임이사로 일본 도쿄(東京)에서 항바이러스제균제를 생산하는 이명호(52) 아루센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는 위생의식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소독제 등 위생 관련 비즈니스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월에 중국과 재중국한국인·조선족 동포를 돕기 위해 옌타이(烟台)시에 바이러스 소독이 뛰어난 8천만 원 상당의 암소이온 촉매제 8t 분량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한글학교, 한인교회, 종교시설, 재외공관, 한인 단체 등에 스프레이 타입의 자사 소독제 2천만 원어치를 기부했다.

고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신문 배달 근로장학생을 시작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식당 접시닦이, 공사장 인부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업을 배워 20대 중반에 창업했다.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체인과 구두 위탁 가공 무역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한때 800억 원 규모로 회사를 키웠으나 과열 경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을 접어야 했다. 남들이 다하는 비즈니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그는 당시 생소했던 소독제 분야에 뛰어들었다.

대학연구소와 협업으로 2년간 제품개발에 몰두해 독보적 기술인 암소이온 촉매제를 만들어냈다. 이 제품은 코마루·하스키·니치만 등 중견 신발 업체에 연간 200만 켈레분의 촉매제를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루센은 그동안 섬유·신발 회사 등에 납품하는 기업용만 생산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개인 방역 수요가 급증하면서 휴대용 스프레이 타입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월 4만 개를 생산해 대형 양판점에 납품하며 중국의 의약품 공급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시장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 **장**



프랑스에서 한류 전파 앞장선
남영호 감독



소독제 1억 원어치 기증한
재일동포 이명호 대표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 긴급지원… 해리스 대사 “감사, 한·미동맹 굳건”

연방·주 정부에 코로나19 검사키트 제공에 뒤이은 조치



5월 1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마스크를 싣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5월 1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적재되는 마스크.(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트위터 캡처)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를 보냈다. 외교부는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마스크는 미국 시간으로 5월 11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 등을 포함한 미국 내 필요한 현장에 지원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미국의 코로나19 조기 극복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한·미 동맹 정신에 기초한 다양한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

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면서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70년 전만큼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75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미 연방 정부에 유상 제공했다. 메릴랜드와 콜로라도 주에도 각각 50만 회, 10만 회 분량의 한국산 키트가 제공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 500만 달러, 2017년 허리케인 하비 및 어마 피해 때 2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70여 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창**

뮌헨 한인 고교생 직접 재봉질해 만든 마스크 “동포에게 나눠달라”

독일 한인사회, 코로나19 이겨나가려는 이웃돕기 확산

독일 뮌헨 인근에 사는 동포 유재현 씨는 최근 마스크 30장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뮌헨의 김나지움(고등학교) 졸업반인 한인 동포 고교생이 손수 재봉질해 만든 면 마스크였다. 어린이용 마스크도 만드는 세심함을 보였다. 소포에는 독일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가운데 마스크를 미처 구하지 못한 동포에게 나눠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 학생은 3월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독동포가 진행한 모금에 1년간 과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성금으로 쾌척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독일의 한인사회에서는 마스크 나눔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나가려는 작지만 훈훈한 이웃돕기가 잔잔히 이뤄지고 있다. 농부이자 큐레이터인 유재현 씨는 이 학생에게 받은 마스크를 한인 동포에게 나눠줬다. 유 씨는 한인 간호사와 의대생, 통역사 등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 상담과 통역 지원, 마스크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 씨와 친분이 있는 한 한국인 설치작가는 뮌헨에서 3월 초 일찌감치 면 마스크 100여 장을 만들어 다른 동포에게 나눠주고, 감염자와 접촉할 확률이 높은 독일인 약사들에게도 기부했다.

베를린에서 1세대 한인 홀몸노인을 돕는 단체인 '해로'는 3월 초 일회용 마스크 1천여 장과 손 세정제 30개를 사서 동포에게 보냈다. 4월 26일 '해로' 측에 따르면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는 개인적으로 '해로'에 지난달 일회용 마스크 100장을 보낸 데 이어 최근 면 마스크 20장을 추가로 기부하기도 했다. 이 면 마스크는 6년 전 자원봉사 활동 중 정 대사를 알게 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12세 아들과 함께 만들어 보낸 100장의 면 마스크 중 일부다. 이 주부는 “정 대사가 독일 동포를 걱정하길래 정말 보잘것없는 실력이지만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고 편지에 적었다. 정 대사는 면 마스크를 동포뿐 아니라 외교활동



독일 뮌헨의 한인 고교생이 만든 면 마스크(사진·재독동포 유재현 씨 제공)

중 만난 현지인 등에게 공공외교 차원에서 나눠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독 한국대사관은 일회용 마스크 5천여 장을 고위험군 한인 1천여 명에게 고루 배송할 예정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씨도 재봉틀로 면 마스크를 만들어 한인 동포에게 나눠주고 있다. 디르크 힐베르트 드레스덴 시장 부인인 소프라노 민수연 씨는 1천 장의 면 마스크를 만들어 시민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우선 72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4월 23일 시 의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 나눠 주었다. 현지 언론은 김 씨와 민 씨의 마스크 나눔 활동을 인터뷰 등을 통해 다뤘다. 자연스럽게 민간외교가 이뤄진 셈이다. 독일의 16개 연방 주는 최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유럽한인 100년 발자취’ 출간… 22개국 이주사 담아

유럽한인총연합회, 일제강점기~1989년 동유럽 진출까지 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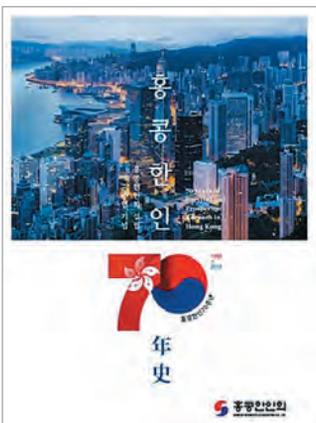
유럽 한인 이주 역사를 기록한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 표지.(유럽한인총연합회 제공)

유럽 22개국 한인들의 이주사와 발자취가 담긴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가 5월 말 국내에서 출간됐다.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헌)가 2018년 편찬 작업을 시작해 2년여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발행인이자 운영위원장을 맡은 유 회장은 5월 13일 "100년사에는 일제강점기부터 1989년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수교한 후 교류할 때까지 유럽 각국의 한인 이주사와 발자취를 총 3권의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각 2천500권을 펴내 각국 한인회와 한글학교, 대사관, 한국내 주요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300쪽으로 구성된 제1권은 일제강점기 때 프랑스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한인 사회를 다뤘다. 특히 1919년 이전의 한·프랑스 관계와 최초의 프랑스 한인들,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활동(1919~1921년), 한인 노동자들의 프랑스 이주와 재법(在法)한국민회 결성, 1920~1930년대의 프랑스 유학생 등 100년 전 프랑스 이주사를 소개했다. 제1권과 같은 분량의 제2권에는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인들의 이주사와 한인사회의 특징, 한인회 출범과 발전 과정, 주요 행사, 한인 단체 현황 등이 담겨 있다. 328쪽 분량의 제3권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핀란드, 헝가리 한인사회의 태동과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럽 내 24개국 120개 한인회를 총괄하는 유럽한인총연합회 설명도 있다.

홍콩한인회, 수출 교두보 역할 70년사 펴내

“차세대에 자긍심 심어주고, 한인사회 단합 위해 발간”



홍콩한인70년사.

홍콩 한인들의 70년 역사를 정리한 '홍콩한인70년사'가 4월 15일 발간되었다. 홍콩한인회(회장 류병훈)는 지난해 홍콩한인회와 주홍콩 대한민국 공관 설립 70주년을 맞아 '홍콩한인70년사'를 출간하려 했으나 시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홍콩한인사는 35년사, 50년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홍콩의 한인 역사는 해방 이후 중국에 거주하던 약 40세대의 한인들이 처음으로 홍콩에 건너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한인회가 출범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3월 1일이고 같은 해 5월 1일에 주홍콩한국총영사관이 설치됐다. 홍콩한인회는 1948년 7월 선박으로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이 홍콩에 정박한 며칠간 음식을 해 나르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1960~1970년대 무역협회가 홍콩에 설립한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발간을 추진한 김운영 전 홍콩한인회장은 “대부분 무역·해운업 종사자가 많았던 홍콩 한인들은 초창기 한국 상품의 수출과 동남아·중국 진출을 주선하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며 “고군분투했던 선배들의 홍콩 정착기와 모국에 공헌한 발자취를 알려 차세대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한인사회 단합을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는 2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책은 각 기관·단체에 배포됐고 한인회 홈페이지(krahk.korean.net/)에서 e-북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마스크 쓴 상파울루 그리팅맨 화제

브라질 한국문화원, 집에서 한류 즐기도록 ‘온라인 문화원’ 운영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브라질 한국문화원 건물 앞에 설치된 그리팅맨에 브라질 국민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걸렸다. (사진·브라질 한국문화원 제공)

브라질 국민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한류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성)이 4월 20일 건물 앞에 설치된 그리팅맨에 대형 마스크를 씌웠다. 한 인동포 규방 공예가가 제작한 가로 50cm·세로 40cm 크기의 이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양국 국기의 색깔인 파란색·빨간색·노란색·초록색 천을 이어 만들어졌다. 그리팅맨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예정이다.

그리팅맨은 ‘인사’를 모티브로 평화와 화해를 지향하는 유명호 작가의 작품인데, 세계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상파울루에는 지난해 8월 문화원 이전·개원을 기념해 설치된 이후 도시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화원은 또 사회적 거리 장기화에 지친 브라질 국민을 위해 ‘코로나19, 한류와 함께 이겨내자’를 주제로 온라인 문화원을 운영한다.

케이팝·한식·한국 영화·한국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문화원 유튜브 채널(CCTV Hallyu)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원의 케이팝 강사가 5월부터 매주 1편씩 케이팝에 맞춰 제작한 안무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통해 익힌 커맨스 실력을 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구독자들이 판정하는 ‘케이팝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챌린지’ 대회가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한식 레시피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자재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할린 한인 지원 길 열렸다”... ‘특별법’ 국회 통과

임대 주택 제공 등 지원 대상에 동반 가족 포함



2019년 사할린동포 일시모국방문 행사.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30일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제정됐다. 이로써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지원 대상을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정의했다. 이어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유해발굴·봉환,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 대상에는 사할린 동포의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포함됐다. 영주귀국 사업 범위로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 희망자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포함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장은 “노령화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외롭게 지내는 이가 많은데 이번 법으로 사할린에 남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는 “일제강점기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고 해방 후에도 강제역류됐던 이들의 82년 숙원이 이뤄진 셈”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할린동포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외면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들의 수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영주귀국 대상 확대 등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온라인으로 통합 개최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 전 세계 50개 지역 100여 명 참여



재외동포가 참여한 가운데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됐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통합해 열렸다.

전 세계 50개 지역 재외동포들이 참여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5월 18일 정오부터 30여 분간 화상회의 서비스 플랫폼인 줌(Zoom)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해외동포 온라인 기념식 준비위원회'가 마련했다. 미국 LA·뉴욕·워싱턴,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호찌민 등 전 세계 50개 지역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등 한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주미영 민주평통 워싱턴 자문위원의 '상록수' 독창, 광상렬 뉴질랜드 민주연합 대표의 개회사,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김상열 일본 도쿄 민주연합 대표와 채영인 세계한인민주회의 미국 뉴욕 자문위원의 '오월의 시' 낭송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정광일 사무총장은 "5·18 기념식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미국·독일 등지에서 열렸고, 2013년부터는 중국,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며 "50개 도시 동포사회가 참여한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통합해 열었다"고 소개했다. 박남중 베트남 호찌민 민주평통 회장은 "각국 동포와 온라인에서 모여 함께 그 날을 상기하고 고국의 발전을 기원하니 더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숙 캐나다 토론토의 민주여성연합 대표는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도 재외동포가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백혈병 한국 어린이, 韓·日·印 3국 공조로 무사히 귀국

인도 동포사회, 전세기 운항 추진, 청와대 청원 노력



4월 23일 뉴델리발 3차 귀국 특별기를 타기 위해 인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동포들. (사진·인도한인회 제공)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대거 막힌 가운데 급성 백혈병에 걸린 한국 어린이 A(5)양이 국제 공조로 어린이날인 5월 5일 무사히 인도에서 귀국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전날 밤 일본항공(JAL) 특별기를 타고 출발한 A양은 이날 오전 도쿄(東京) 히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대한항공으로 갈아타고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1박 2일에 걸쳐 7천여km를 이동한 A양의 귀국은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국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도 주재원의 딸인 A양은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했으나 한국행 항공편이 없어 애를 태우던 중,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의 협력으로 JAL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한·일 외교당국과 항공사, 한인회, 병원 등이 힘을 모았고 인도 정부가 특별기 운항을 허가하면서 귀국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A양 이송을 위한 움직임은 인도 현지 한인회가 5월 3일 동포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어린이가 처한 어려움을 알리면서 본격화했다. 주재원의 5살 된 딸이 뉴델리 인근 구르그람(옛 구르가온)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인도한인회가 전세기 운항에 팔을 걷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지원을 호소한 동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대사관이 인도 내 타국 공관에 협력을 요청했고 일본대사관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JAL 특별편에 A양이 탑승하게 됐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어 온라인 수업자료실 오픈

미국 내 한국학교 800개가 가입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오정선미)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학습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업 자료실(www.naks.org/jml/naks-online-classes-menu)을 열었다고 4월 28일 밝혔다. 자료실에는 미국 내 한국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전 과정을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문서(PPT)로 게시할 예정이다. 매주 한 단원씩 올려 6월 말까지 모든 과정의 수업 자료를 탑재할 계획이다.



해외 가족 1명당 마스크 최대 24장 보낼 수 있다

관세청은 '1회 최대 8장(1개월분)'인 해외거주 가족 1명당 발송 가능 마스크 수량을 5월 1일부터 '1회 최대 24장(3개월분)'으로 늘린다고 4월 29일 밝혔다. 아울러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EMS(국제우편) 접수가 불가능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한 배송 절차를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함께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MS프리미엄 서비스 접수는 인터넷이 아닌 우체국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재미동포, 코로나19 공동 대응 'K-연합'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들이 코로나 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최근 'K-연합'(K-Coalition)을 설립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커뮤니티재단은 북가주한민변호사협회, 코리아센터(KCI·사진) 등 8개 한인 단체가 연대해 'K-연합'을 조직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K-연합' 활동에는 코로나19 최신 정보 제공(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온라인 워크숍과 무료 법률 클리닉 운영, 유튜브 세미나, 어르신 무료급식 배달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로 지친 심신 달래요"... 캄보디아한인회, 어버이날 행사

캄보디아한인회(회장 박현옥)는 제48회 어버이날인 5월 8일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회관 앞에서 동포 200여 명을 초청, 점심을 대접하는 등 화합의 장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심신을 달래려고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등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고 한인회 관계자가 전했다. 한식으로 준비한 이날 점심 비용은 한인회 임원들이 십시일반 쾌척한 돈으로 충당됐다.

영국 한인사회, 한인 밀집 거주 지역병원에 지원금 전달

영국 한인사회는 5월 12일 런던 한인 밀집 거주지역 내에 있는 킹스턴 종합병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금 약 2만 파운드(약 3천만 원)를 전달했다. 그동안 한인회 주도로 주요 재영동포단체와 재영한국경제인협회(코참) 등이 참여해 킹스턴 병원 지원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박은하(사진 오른쪽) 주영 한국대사와 송천수 한인회장, 김점수 코참 부회장, 장정은 한·영 문화교류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40개국 1천 명 한인, 온라인서 실시간 소통... "드문 사례"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하용화·사진)는 5월 13일 1시간여 동안 리뉴얼한 '월드옥타 애플리케이션' 앱 설명회를 웨비나(화상 토론회)로 진행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하 회장은 직접 앱을 소개한 이날 웨비나에는 미국과 중국, 중남미, 남아공 등 4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1천90명이 참여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미팅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의 1천 명이 넘는 회원과 온라인에서 소통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프랑스 상원 보고서 “한국은 코로나19 모범사례”

상원 다수당 공화당, 한국 대응 상세히 소개… “교훈 얻고자”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LR)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정부는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패닉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보듯이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다른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또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추동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방식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프랑스에서 한국의 방식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4월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정보보호 규약보다 덜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토크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카트린 뒤마 의원이 주도했다. 뒤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연구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는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브뤼노 르타이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국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맡겨 광범위한 인터뷰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장]**

김용래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베트남에 143개 한국 기업 340명 예외 입국... “빚장 푸는 단계”

대규모 예외입국 한국이 유일... 중소기업 문호 개방도 처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베트남에 4월 29일 한국 중소·중견기업 127개사 등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 직원 650여 명의 입국을 허용하고 LG전자 등 LG 계열사와 협력사 직원도 500명 가까이 입국할 수 있게 했지만, 중소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내 플랜트 건설과 공장 증설·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공기업 1개, 금융사 6개, 대기업 9개, 중소·중견기업 127개사 직원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기업인의 단일 입국으로는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날 인천발 대한항공 전세기 두 편을 이용, 베트남 북부 꽝닌 성 번돈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꽝닌 성 할롱 시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 2주간 격리를 마치고 5월 13일 개별 사업장으로 이동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코트라(KOTRA)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은 격리 기간에 화상으로 베트남의 투자·무역 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한 후 대규모 기업인의 입국을 잇달아 허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등 현지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해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일 응우옌쑤언 폭 총리와 통화에서 “중소기업 인력도 이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한 뒤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의 단체 입국도 성사 됐다.

4월 29일 번돈 공항에는 박 대사와 도 넷 호앙 베트남 투자계획부 외국인투자청장이 직접 나가 한국 기업인들을 맞이했다. 박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서서히 한국에 대한 빚장을 푸는 단계”라면서 “개학을 앞두고 아직 입국하지 못한 우리나라 학생 및 학부모 200명가량과 추가 입국이 필요한 필수 기업인 700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가운데)와 도 넷 호앙 베트남 투자계획부 외국인투자청장(오른쪽)이 4월 29일 베트남 번돈 공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들의 검역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 중소·중견기업 127개사를 포함한 143개 기업 필수인력 340명이 5월 13일 격리시설인 베트남 북부 꽝닌 성 할롱 시 5성급 호텔에서 나와 소속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제공)

명 등이 조속히 베트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선도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외교적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마음 아픈 결정이었다는 얘기를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이번에 대규모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한국을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창]**

민영구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

재외동포재단 자문위, 내외 동포 간 이해 증진 방안 논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 추진 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칭) 명칭과 내외 동포 간 상호 이해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우성 이사장(사진 둘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은 “재외동포재단도 한상(韓商) 청년인턴들을 귀국시키고 해외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애쓰고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께서 재외동포재단과 한민족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성 자문위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입양인과 베트남 귀환 다문화 자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느꼈다”면서 “자문위원들도 의례적인 회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4월 10일 정·관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와 재외동포 등 각계 전문가 25명을 위촉해 제9기 자문위



제9기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들이 5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0년 제1차 회의의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회를 구성했으며 서면 회의를 거쳐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자문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2020년 제1차 자문위원회' 참석자는 김용환, 김우영, 김현명, 김형철, 김한균, 박상철, 박인기, 심소희, 이서영, 이희용, 유현경, 장완익, 장은하, 정진성, 조경희, 차성수, 최태성 위원이다.

내년 세계한상대회, 대전광역시에서 열린다

2021년 세계한상대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세계한상대회 제36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대전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대전광역시의 개최 계획과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차기 대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는 한민족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재외동포재단과 지자체가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 최초로 대전에서 개최된다. 올해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식.



재외동포와 한국어 교육의 동행!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 EBS 국어 강사

몇년 전 재외동포재단의 현지 연수에서, 16살 정도의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계속 살 계획이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제가 한국 후손이라는 이유로, 한국말과 글을 꼭 알아야 하나요?”

재외동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글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우고 익히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배우는 의미를 몇 가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말과 글은 한국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의 교량입니다. 같은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면, 한국인들이 또는 동포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연결의 끈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같은 말과 글을 쓰게 되면 동질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라나는 세대들은 각 거주지 국가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동질성에 대해 내적인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어는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거주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말 글을 사용한다면 한민족의 뿌리라는 같은 감정과 느낌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국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말과 글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 담겨있고, 친족을 부르는 용어가 발달한 것은 대가족 사회에서 서로를 부르는 가족 문화를 보여줍니다. ‘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고, 자연을 사랑하는 말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에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과 열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이데거(Heidegger)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라고 하였습니다. 언어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고, 인간은 언어 안에서 거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 교육을 위해 더욱 한국어를 그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



2019 한글학교 교사 교장 초청연수 개회식.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한글학교 교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0년도 교사인증과정 정규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과정 개요

- 수강 대상: 스테디코리안에 등록된 한글학교의 소속 교사
- 운영 기간: 2020년 5월 11일(월)부터 2020년 12월 14일(월)까지 기수별 운영
※ 교사인증과정의 모든 일정은 대한민국시각 기준으로 하며 기수별로 수강 신청 마감일, 교육 기간이 상이하므로 하단에서 세부 일정 확인
- 개설 과정: 정규과정 1단계, 2단계, 단축과정A·B
- 수강 비용: 무료

수강 안내 및 수강 절차

1. 스테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 로그인
2. 스테디코리안 상단 교사 → 교사인증과정 메뉴 클릭 → 좌측 메뉴 중 원하는 과정명 클릭 → 커리큘럼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수강신청
3. 교육 기간 내에 교사 → 교사인증과정 → 인증과정 관리 → 인증과정 강의실에서 학습
4. 기수 종료일부터 인증과정 강의실의 이수증 발급 버튼을 통해 이수증 출력

문의 교사인증과정 질문 / 게시판 또는 전용 메일(teacher@okf.or.kr)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부 박현진 과정(jinpark@okf.or.kr)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정철훈 원저 / 김금숙 글 그림(서해문집)

김알렉산드라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출생한 한인 2세로, 조선인 최초로 볼셰비키 혁명가이자, 노동 인 권과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그의 생애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 출간되었다. 정철훈 작가의 원작 '소설 김알렉산드라' (2009)를 바탕으로, 김금숙 작가가 강렬하고도 우아한 그래픽노블로 재탄생시킨 책이다. 그래픽노블만의 감성으로 그 당시 러시아 이주 한인의 모습을 만나보자.



등을 겪은 삶의 사건들을 통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풀어낸다. 작품 제목은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동명 피아노곡에서 따온 것으로, 음악을 빌려 더없이 음악적인 언어들로 삶을 기록해나가는 뜻을 담고 있다.



덧없는 환영들

제인 정 트렌카(창비)

정체성의 혼란, 아시아계 여성이 모국을 떠난 삶 등 이질적인 세계들을 혼란스럽게 오가며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작가의 자전소설이다. 이 소설은 백인 중심사회에서 겪는 고립감, 스토키의 공포, 결혼의 실패

강제이주열차

이동순(창비)

시집 '강제이주열차'는 구소련 시절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사를 다룬 시집이다.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내몰려야 했던 강제이주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에게 전하는 이 시집에는 고려인들의 삶과 여정이 그려져 있다. 1937년 강제이주 열차를 타고 42일 동안 2만km를 이동하였던 기나긴 여정을 '시(詩)'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응축된 감정으로 느껴보자.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합니다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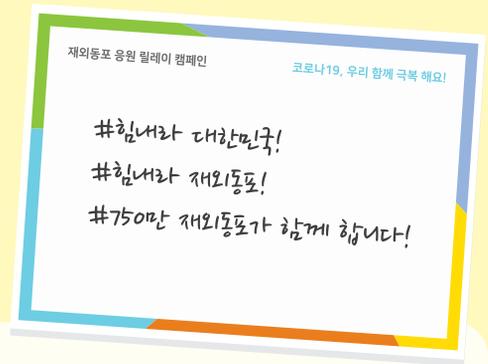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에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가 주세요.

참여방법



* 자세한 참여방법은 **코리안넷(www.korean.net)** 희망릴레이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 ▶ Tip 1 지목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 ▶ Tip 2 피켓 출력이 어려운 경우, 도화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힘내라대한민국! #힘내라재외동포! (또는 거주국이나 단체명)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합니다!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

캠페인 관련 문의 pms01@okf.or.kr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